



한 ● 국 ● 원 ● 자 ● 력 ● 연 ● 구 ● 소

‘제2 원자력밸리’ 조성

**원** 자력 관련 벤처기업이 한데 모이는 ‘제2의 원자력밸리’가 조성될 전망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장인순)는 “연구소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향후 연구개발 및 생산 공간 확충을 위해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에 10개 이내의 벤처기업을 수용하는 원자력밸리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연구소는 이를 위해 조만간 과학기술부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업체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원자력밸리 조성 방안을 마련, 연내 착공을 목

표로 입지와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1만5000평 부지에 13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6월 준공된 ‘제1 원자력밸리’는 현재 한빛레이저, 카이텍, 가이아, 한울로보틱스, 텔레옵틱스, 파미, 금광 등 7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과학기술 클러스터 모델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원자력연구소는 지난 97년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에는 지금까지 총 20여 벤처기업들이 입주했다.

한 ● 국 ● 수 ● 력 ● 원 ● 자 ● 력 ● (주)

삼중수소 제거설비 ‘첫삽’

**원** 전의 대표적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거설비가 국내 최초로 건설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최양우)는 2월 27일 경주시 월성원자력본부 현장에서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중수소제거설비(TRF, Tritium Removal Facility) 착공식을 가졌다.

이 설비는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가동 중인 가압중수로형 원전의 운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제거하기 위한 설비로 시간당 100kg의 중수를 정제할 수 있으며, 섭씨 영하 250도의 초저온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관련산업에 미칠 첨단기술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사에는 약 800억원이 투입되며 전체 사업관리는 한수원이, 설계는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와 한전 등이, 시공은 대우건설·두산중공업 컨소시엄이 참여해 2005년 6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헬륨냉동기 등 40여개 품목의 기자재는 국내외 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할 계획이다.

이 설비가 본격 가동되면 삼중수소 농도를 현재의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켜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량 감소는 물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 원전의 안전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4기의 월성원전은 캐나다형·중수로형 원전으로서 냉각재로 물(H<sub>2</sub>O) 대신 중수(D<sub>2</sub>O)를 사용한다. 물은 수소와 산소의 결합인 반면 중수는 중수소와 산소의 결합인데, 중수소는 일반수소보다 중성자를 하나 더 보유하고 있다. 이 중수소는 원자로 내부에서 핵분열 영향으로 중성자를 하나 더 흡수해 삼중수소로 변화되는데, 이 삼중수소는 높은 방사성을 띠고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TRF는 캐나다 달링턴 원전에 설치·가동 중이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설치하는 것이다.

### ‘암유전상담 클리닉’ 홈페이지 개설

**암**에 걸릴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원자력의학원(원장:심윤상)과 삼성SDS가 함께 개발한 사이버 암유전상담 사이트인 ‘암유전상담 클리닉(<http://www.geneclinic.re.kr>)’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다.

진단검사의학과 의료진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이트는 온라인 상담 및 예약이 가능하며, 암 위험도 평가, 베헤럴클리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의료진의 권고사항 등 유전상담 및 진료 결과를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도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개발된 암발생 위험도 평가 프

로그램에서는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12개 종류의 암에 대한 발생 위험도를 설문을 통해 누구나 자신이 암에 걸릴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볼 수 있다.

암 발생 위험도 평가를 위한 설문에는 연령, 흡습관, 흡연경력, 환경, 가족력, 병력, 운동습관, 출산경력 등의 임상정보를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즉시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발암 위험요인은 무엇이고,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조언받을 수 있다.

### 진료정보 1차병원과 공유

**계**명대 동산의료원(원장:서수지)은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1, 2차 병의원이 의뢰한 환자의 3차 의료기관 진료정보를 웹(Web)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진료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산의료원에 따르면 1, 2차 병의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동산의료원에 의뢰한 환자에 대한 모든 진료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지속적인 환자관리와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시스템은 동산의료원에서 실시한 외래 진료, 각종 검사, 방사선촬영, 수술 및 입원 결과, 영상자료 등을 병

의원에서 검색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1, 2차 병의원과 3차 의료기관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야 했던 환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동산의료원 관계자는 “환자진료 정보를 1, 2차 병의원과 공유함으로써 진료를 의뢰한 병의원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3차 의료기관의 연구 및 최신 기술 습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